



주문을 외워 봐(르완다 동화)

원작: 마법의 주문

글: 이브라히마 디야예

그림: 카푸치니 마질레

편집: 문화다양성 교육자 강민기, 민경호

배역 : 코끼리, 하이에나, 마마텝 할머니, 카멜레온, 사자, 파리, 거북이

옛날 어느 날, 파라피나 땅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동물들이 굶주리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일 나이 많은 코끼리가 바오밥 나무 아래로 친구들을 불렀어요.

코끼리 : 친구들아, 이대로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은 말라버리고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몰라. 내일 아침 일찍 모두 함께 먹이를 찾으러 가면 어떨까?

동물들(다같이) : 좋아, 좋아. 가 보자~

다음 날 아침, 코끼리와 친구들은 먹이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동물의 왕 사자가 앞장을 섰고, 벌과 파리가 하늘을 날며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지켜보았어요.

코끼리와 키가 큰 기린은 행렬의 맨 뒤에서 걸었고, 눈이 좋아 멀리 볼 수 있는 카멜레온은 기린의 머리 위에 앉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하이에나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이에나 : 난 더는 못 가. 배고파서 더는 갈 수가 없다고!

사자 : 그만 칭얼거려! 함께 가기 싫으면 혼자 집으로 돌아가!

사자의 호통에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카멜레온이 소리쳤어요.

카멜레온 :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과일이 달린 나무가 보인다!
마룰라 나무 같아!

카멜레온의 말에 사자는 벌과 파리를 그곳으로 보냈어요.
잠시 후, 나무 근처로 다녀온 파리가 말했어요.

파리 : 진짜야! 카멜레온은 눈이 정말 좋다니까.
과일이 가득 달린 마룰라 나무야.

원숭이가 제일 먼저 마룰라 나무에 올라가 힘껏 가지를 흔들었지만 열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힘 센
코끼리가 당겨도 열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끼리 : 혹시 이 나무는 마법에 걸린 게 아닐까?

카멜레온 : 저 멀리 바오밥 나무 아래 할머니가 보인다!
그런데 저 할머니는 이 나무 열매랑 비슷한 열매를 먹고 있어!

코끼리 : 그래? 그럼 내가 할머니에게 열매를 어떻게 뺏는지 물어보고 올게

할머니의 이름은 마마텡가였어요. 마마텡가 할머니는 코끼리와 친구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마룰라
열매 따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마마텡가 할머니 : 마룰라 나무 열매를 따려면 주문을 말해야 한단다.
내가 알려줄 테니 잘 외워 보렴.
디کم 다کم 라کم 디니کم 판کم 판کم 비비 사야.

코끼리 :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텡가 할머니는 코끼리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어요.

코끼리 : 디کم 다کم 라کم 디니کم 판کم 판کم 비비 사야~

코끼리는 마마텡가 할머니가 알려준 주문을 잊어버릴 까봐 몇 번이고 소리 내 외우며 걸어갔어요. 그
때 갑자기 코끼리 앞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나타났어요.

코끼리 : 와아! 물이다. 잠시 목욕만 하고 갈까?

그런데 잠시 후, 코끼리는 마마텡가 할머니가 알려준 주문을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코끼리 : 어찌지, 주문이 기억이 안 나네~

친구들에게 도착한 코끼리가 우물쭈물 말을 꺼냈어요.

코끼리 : 열매를 따려면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 마마텃가 할머니가 주문을 가르쳐 주긴 했어. 그런데 내가 그만 이 곳으로 오는 동안 까먹었어. 애들아, 정말 미안해. 난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 말에 하이에나가 소리쳤어요.

하이에나 :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면 코끼리가 소문만큼은 머리가 좋지 않는거군.

코끼리 : 흑흑, 애들아, 주문을 외우는 건 쉽지 않아. 너희도 쉽지 않을 거야.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 봐.

하이에나 : 그래! 알았어. 내가 해 볼게!

마마텃가 할머니에게 주문을 들은 하이에나는 친구들 앞에서 코끼리를 놀릴 생각에 얼른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죽은 낙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걸 우연히 보았어요.

하이에나 : 이게 웬 낙타야~

너무 배고팠던 하이에나는 허겁지겁 죽은 낙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하이에나 역시 마마텃가 할머니가 알려준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동물들(다같이) : 너도 코끼리랑 같아! 아니, 네가 더 나빠!

거북이 : 그래, 너는 늘 너만 생각해!

그 말에 하이에나가 거북이를 때리려고 했고, 코끼리가 쿵쿵 발을 구르며 싸움을 말렸어요.

코끼리 : 애들아, 이렇게 하다간 이 나무 열매를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모두를 여덟 그룹으로 나누고 마마텃가 할머니에게 가서 다시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마마텃가 할머니가 말해주는 여덟 단어를 각각 하나씩 맡아 외우는 거야.

마마텃가 할머니는 코끼리와 친구들이 모두 와서 주문을 알려달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코끼리와 친구들은 마룰라 나무를 향해 뛰었어요.

마룰라 나무 밑에 도착한 코끼리와 친구들은 서로 가까이 서서 눈을 감고 함께 외쳤어요.

동물들(다같이) : 디컴 다컴 라컴 디니컴 판컴 판컴 비비 사야.

그러자 색색의 마룰라 나무 열매들이 후두두둑 떨어져 나무 밑은 알록달록한 열매 바다가 되었어요.

동물들(다같이) : 우와~ 열매가 떨어진다!

코끼리와 친구들은 기뻐서 소리 지르며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맛있는 마룰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열매는 배고플 때를 위해 잘 모아두었다고 해요.

본 커리큘럼은 구글닷오알지(Google.org)가 후원하는 학교 안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Diversity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수업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